

'광주 = 야구'?...올 시즌은 '광주 = 축구'



광주FC, 제주에 2-1 승리...파이널A 확정 거침없는 플레이로 K리그1 돌풍 일으켜 전용구장 등 열악한 인프라 속 값진 결실 이젠 한국 넘어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도전

광주FC발 광주의 축구 열풍이 이어질까? 광주는 대표적인 야구 도시로 꼽혀왔다. 11번의 우승에 빛나는 타이거즈를 보유한 도시로 '광주=야구'였다. 하지만 올 시즌 광주의 축구 열기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부터 관중석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이정호 감독으로 2022시즌 새 판을 짰던 광주는 25승 11무 4패(승점 86)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K리그2 정상에 올랐다. '이정호표 공격'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광주는 K리그2 최다승·최다승점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K리그2 최다 관중 기록 '탑10'에도 광주 이름이 세 번 등장한다.

10월 9일 경남과의 홈경기에서 5861명이 입장하면서 지난해 K리그2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이 만들어졌다. 3위(10월 2일 대전 원정 경기-5230명), 10위(7월 30일 대전 홈경기-3326명) 경기에도 광주가 있었다.

올해도 광주는 성적과 흥행을 동시에 잡고 있다. 거침 없는 플레이로 광주는 K리그1의 돌풍팀이 됐다. 그리고 지난 1일 제주전에서 업적의 선제골과 하승운의 '극장골'로 2-1 승리를 거둔 광주는, 33라운드 강원전을 남겨두고 2020시즌 이후 두 번째 파이널A를 확정했다.

앞서 전북현대가 대구FC에 패하면서 '경우의 수'에 따라 광주의 파이널A 진출이 확정됐지만 광주는 제주전 승리로 자격을 입증했다. 새 역사를 써

가고 있는 광주의 시선은 이제 아시아챔피언스리그로 향해있다.

끝까지 가는 승부에, 지더라도 박수 받는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올 시즌 광주는 홈 15경기에 6만 3993명의 관중을 불러모았다. 평균 4266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은 셈이다.

전용구장이라고 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홈 구장이지만 팬들은 광주의 열정적인 축구를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앞선 홈경기였던 9월 24일 전북현대전에서는 일찌감치 표가 매진되면서 '표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즌 내내 축구 열풍이 불면서 광주 축구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광주축구전용구장은 K리그에서 약망이 높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전용구장이지만 가변적으로 구성된 관중석에서 팬들은 비바람, 햇볕과 싸우며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당연히 편의 시설도 부족하다.

그라운드 상황도 마찬가지다. 앞선 전북전에서는 선수들의 경합이 벌어질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잔디 곳곳이 패어있는 경기장이 고스란히 중계 카메라에도 노출되면서 K리그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경기력은 물론 선수들의 부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라운드 관리는 중요하다.

K리그1 경기가 진행되는 그라운드 상태도 문제지만 광주 선수들은 웃지 못할 '훈련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물론 선수들도 승리 인터뷰를



광주FC가 창단 두 번째 파이널 A를 확정하는 등 뜨거운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열악한 경기장과 연습장 등 실력에 미치지 못하는 인프라가 아쉽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매진된 광주축구전용구장. 지붕 없는 가변석 관람석과 곳곳에 잔디가 때인 그라운드가 눈에 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하면서 "마음 놓고 훈련하게 해주세요"를 몇 차례 언급했다.

'훈련'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전북과의 홈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 상태를 놓고 뼈있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정호 감독은 "할 말이 많다. 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둔다. 선수들이 안쓰럽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는데 남은 중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선택이 있어서 힘들다"고 토로한 뒤 "선수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데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일단 광주시는 전용구장 잔디 전면 교체와 유명 무실인 축구센터를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호 감독에서 시작된 축구 돌풍을 광주의 또 다른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력에 맞는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이정호표'는 최선을 다한 플레이로 뜨거운 가을을 만들었다.

구단주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 시즌 원정 응원까지 나서서 등 '광주 서포터즈'로 활약하고 있다. 이제 광주시가 선수단과 팬들의 열정에 응답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연패 탈출...가을 야구 '불씨'



KIA 타이거즈가 '가을 잔치' 불씨를 지켰다. KIA가 3일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의 시즌 13차전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5위 SSG와의 주말 2연전에서 이를 연속 선취점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기 패를 당했던 KIA는 연패에서 벗어났다. SSG도 이날 NC에 9-7로 이기면서 2.5경기 차로 승차는 좁히지 못했다.

이날 KIA가 승리하면서 2위 KT에 8경기 차로 앞서있던 LG는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정규시즌 1위를 확정했다.

KIA가 1회초 KT 선발 고영표를 상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투타자 박찬호의 타구가 외야로 향했고, 중견수 배정대가 몸을 날렸지만 공이 뒤로 흘렀다. 3루까지 간 박찬호가 김도영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홈에 들어왔다.

이후 감잡은 고영표에 막힌 KIA 타선이 2-4-5 회를 삼자범퇴로 물러났다. 3회 김규성의 우전 안타 뒤 후속타가 불발됐다.

KIA 선발 이의리도 위기는 있었지만 4회까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다.

1회 1사에서 유격수 박찬호의 실책이 나왔지만 알포드를 상대로 땅볼을 유도해 선행주자를 잡아냈고, 포수 김태군이 알포드의 도루를 저지하면서 1회가 끝났다.

이의리가 2회 2사에서 장성우와 황재군에게 연

이리 시즌 최다 109개 투구
9회초 2득점하며 KT에 3-1 승
5위 SSG와는 2.5경기 차

속 불넷을 허용했지만 오윤석을 4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3회 1사에서 조용호에게 첫 안타를 맞은 이의리가 김상수를 삼진으로 잡았지만 알포드의 좌전 안타로 2사 2:3루에 몰렸다. 이어 이날 경기의 승부처가 연출됐다. 4번 타자 박병호가 연달아 공을 커트하면서 이의리를 괴롭혔지만, 이의리가 10구째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면서 웃었다.

하지만 선두타자 오윤석을 불넷으로 내보낸 5회, 이의리가 동점을 허용했다. 백정대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고 원아웃을 만들었지만 조용호에게 다시 불넷을 허용했다. 이어 김상수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면서 1사 만루가 됐다.

알포드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1 원점으로 돌아간 승부, 이의리가 박병호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고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6회 KT 불펜이 가동됐다. 선발 고영표가 57개의 공으로 3피안타 1실점의 호투를 선보였지만, 5회 마지막 타자였던 김태군과의 승부에서 오른쪽 팔을 맞아 이재호로 교체됐다.

5회까지 98개의 투구수를 기록했던 이의리는 6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문상철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이의리는 장성우와 황재군에게 각각 좌전안타와 불넷을 허용하

면서 1사 1:2루에서 윤중현으로 교체됐다.

1루수로 나선 김규성이 좋은 수비로 이의리의 실점을 막았다. 김규성이 대타 이호연의 강습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냈고, 그대로 베이스를 밟아 스타트를 끊었던 1루주자 황재군까지 동시에 아웃시켰다.

이와 함께 이의리의 성적은 5.1이닝 4피안타 5볼넷 4탈삼진 1실점이 됐다. 투구수는 109개로 이의리의 시즌 최다 기록이다.

황당한 야시안게임 대표팀 탈락 후 첫 경기였던 NC전에서 77구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던 이의리는 이번에는 100구를 넘기면서 류중일 야시안게임대표팀 감독발 '80구 논란'에 '이상 없음'을 보여줬다.

시즌 최다 투구에도 승리는 행하지 못했지만 연패 중이었던 팀은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

팽팽한 불넷 싸움이 전개되면서 1-에서 KIA의 마지막 공격이 전개됐다.

9회초 김도영이 선두타자로 나와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로 무사 2루를 만들었다. 김선빈이 번트 동작 뒤 강공으로 전환해 우전 안타를 기록했다. 짧은 타구였지만 김도영이 특급 스피드로 홈에 들어와 2-1이 됐다. 그 사이 김선빈이 2루까지 진루했고, 대주자 최정용이 투입됐다. 소크라테스의 중견수 플라이로 3루까지 간 최정용은 이우성의 몸을 날린 희생번트로 홈까지 들어왔다.

이어 9회말 출격할 정해영이 배정대에게 좌전안타는 맞았지만 대타 김준태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영암의 딸' 유해란 LPGA 첫 우승

월마트 아칸소 챔피언십 정상...신인상 부문에서도 1위 질주

영암 출신 유해란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달성하며 여자 골프 세계 랭킹 28위가 됐다.

유해란은 3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해 37위보다 9계단이 오른 28위가 됐다.

올해 LPGA 투어 신인 유해란은 2일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에서 끝난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30만 달러)에서 정상에 올랐다.

투어 입문 후 첫 승을 따낸 유해란은 올해 신인상 부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릴리아부(미국), 인휘닝(중국), 고진영, 넬리 코다(미국)가 1~4위를 유지하는 등 상위권 변화는 크지 않았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79번째 대회 만에 처음 우승한 박주영은 76계단이 상승한 102위에 올랐다. 박주영은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에서 끝난 KLPGA 투어 대보 하우스디오픈(총상금 10억



영암 출신 유해란이 지난 2일 열린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원)에서 정상에 올랐다. KLPGA 투어에서 279번째 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것은 최다 대회 출전 첫 우승 신기록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 2023-10-17(화) ~ 22(일)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소극장, 잔디광장
 문의 : 062-613-8233

소리극 <콜비츠와의 대화>
 일시 : 2023-10-17(화) ~ 18(수)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